학번 : 20093267 이름 : 김성근

Cookies and Candy 요약

이 책에서는 ‘쿠키’라는 초보 개발자가 ‘캔디’라는 고객에게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는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석 및 설계’가 왜 필요하고 어떤 방식으로 ‘분석 및 설계’를 수행해야 되는 지에 대하여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나온 이야기에서 캔디가 쿠키를 만나서 간단한 프로그램에 대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개발자인 쿠키는 요구사항에 대하여 상세하게 파악하지 않았고, 고객인 쿠키도 요구사항에 대하여 단순한 상황만을 묘사해 주는 것으로 그쳤습니다. 당연히 프로그램은 ‘쿠키’가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을 통해 개발자가 분석 및 설계 작업을 정확히 수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점을 보여주고, 이것에 따른 분석 및 설계 과정에서 쓰이는 다양한 도구 사용을 이 책에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해 오면서 저도 이러한 경험을 했었고 이것에 대한 해결방법이 많이 필요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나온 여러 가지 도구의 사용은 새로 투입되는 개발자나, 처음 툴을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상당한 제약사항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물론 책에서 소개되고 있는 DFD(Data Flow Diagram), DD(Data Dictionary), 미니사양서와 같은 것들을 사용하면 좋을지 몰라도, 이것에 대한 경험과 많은 사항들을 잘 모르는 개발자가 많다면, 이것을 배우는 시간이나 비용이 더 많이 들어서 불필요한 작업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도구를 사용하는 것도 좋지만, 개발팀에서는 이런 개발 도구에 대해 알고 이 도구들을 자신들의 상황에 맞게 정해두고 개발을 진행해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이 책에서 나오는 다양한 도구들에서 대해서는 참고자료라고 생각하고 읽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에서 쿠키가 상세한 분석을 통해 캔디에게 DFD를 보면서 말해주고 이해하는 과정이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아직 데이터의 구조나 관계가 표현되지 않아 이를 ER이라는 도구를 이용하여 표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역시 이 과정도 첫 번째 이야기에서 나왔던 것 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어떻게 도구를 사용하는 지에 대해서 참고하면서 읽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에서 ER 모델링을 이용하여 거의 완벽하게 캔디에게 보여줬지만 캔디는 아직까지 프로그램에 대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우리에게 고객과 개발자 사이에 많은 의사소통을 통하여 상세한 분석 및 설계를 해야 됨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성공한 분석 및 설계에 대한 예도 보여주면서 분석 및 설계가 얼마나 중요하고 시간을 오래 투자해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에서 프로그램이 드디어 완성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면서 분석 및 설계도 많이 하고 많은 사항에 대하여 생각했기 때문에 고객에게 알맞은 프로그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나온 UML 액티비티 다이어 그램, Use Case, 스테이트차트 다이어그램 등을 사용하여 어떻게 개발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역시 자신의 팀과 상황에 맞게 맞추어 적용한다면 분석 및 설계 그리고 추후에 유지보수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IBM 도구에 대한 설명이 나와있었는데, 이러한 도구들이 분명히 분석 및 설계에 많은 도움이 될 것 이라고 읽어가면서 생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책을 읽으면서 ‘분석 및 설계’를 어떤 방식으로 하면 좋을지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몇 가지 프로젝트를 하면서 대부분이 겪어 봤던 상황들이었는데, 그 상황들을 보면서 아 그때 이렇게 했으면프로젝트 진행이 더 쉬웠을 수도 있었겠구나 라는 생각도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많은 도구들을 보면서 이런 도구들이 꼭 필요할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위에서 계속 언급했던 것과 같이 여러 가지 도구들을 보고 사용해보면서 우리가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맞는 ‘분석 및 설계’과정을 정립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해 나아가야 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